"소중한 한표 행사했어요"

스타들도 투표 인증 릴레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인 13일 스타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소녀시대 서현과 효연, 배우 고아라, 방송인 전현무 등은 SNS에 '투표 인증' 샷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센터를 찾아 투표한 서현은 "투표완료. 우리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합시다"란 글과 함께 손등에 찍은 투표 도장 사진을 공개했다. 가족과 함께 인천 송도에서 투표한 효연도 투표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렸다.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에서 열혈 판사로 출연 중인 고아라는 '#투표 #완료 #도장 #꾸욱'이란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게재했다.

방송인 전현무 역시 "투표한 것 후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며 투표소에서 편한 복장으로 찍은 '셀카'로 인증을 했다.

배우 김소현은 "생애 첫 투표하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라고, 가수 솔비는 "투표 하셨어요? 유권자의 아름다운 권리, 소중한 한 표 행사"라는 글과 함께 인증샷을 올렸다.

방송인 허지웅도 "그릇되고 부패한 과거의 유령들을 청산하는 작업은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은 시민이 직접 청산하는 날입니다. 투표합시다"란 글로 투표를 독려했다.

서현과 효연, 솔비, 고아라(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또 가수 케이윌·치타·레인보우 출신 지숙·인피니트 성열, 배우 채시라·김정은·강은비, 뮤지컬 배우 홍지민 등이 이른 아침부터 잇달아 투표를 마쳤다고 전했다.

지난 8~9일 진행된 사전 투표 때도 그룹 방탄소년단과 가수 아이유·비, 배우 정우성·손현주 등이 투표 완료 인증샷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인생의 절반이 샤이니"

데뷔 10주년 소회…25일 6집 세 번째 에피소드 공개

"10주년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껴요. 늘 새롭게 트렌드를 제시하는 팀이고 싶습니다."

샤이니가 데뷔 10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샤이니는 지난달 28일 정규 6집 '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The Story of Light)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컴백 신호탄을 쐈다.

이들이 국내 활동을 재개한 건 2016년 11월 정규 5집 리패키지 앨범 '원 앤드 원'(1 and 1) 이후 1년 6개월만. 지난해 12월 고 종현이 세상을 떠난 뒤 4인 체제로 처음 내는 신보이기도 했다.

리더 온유(본명 이진기·29)는 "쉴 새 없이 달려왔다. 사실 10주년이라는 걸 못 느꼈는데 주변의 축하를 받으며 실감 났다. 멤버들과 함께한 시간이 값지게 남았다"고 회고했다.

민호(본명 최민호·27)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얼마 전 이수만 선생님과 식사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더라. 10년간 경험한 많은 것을 담아 저희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본명 김기범·27)는 정규 6집을 3부작으로 구성했다면서 "타이틀곡을 3개로 한 건 '샤이니가 여기에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그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태민(본명 이태민·25)은 "13살에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으니 딱 인생의 절반을 샤이니로 보냈다. 자부심을 느낀다.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자부심을 느낄 만했다. 2008년 '누난 너무 예뻐'로 데뷔한 샤이니는 지난 10년간 '링딩동', '셜록', '에브리바디' 등 숱한 히트곡을 쏟아냈다. 'K팝은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 같다'는 비판에서도 샤이니의 음악과 퍼포먼스만은 예외였다.

한결같은 인기 비결을 묻자 태민은 "지금까지 안 해본 장르가 없을 만큼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다. 이젠 단순히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샤이니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시기가 됐는데, 그게 다른 팀과의 차별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샤이니는 정규 6집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타이틀곡 '데리러 가'는 현대무용을 차용한 독창적인 안무로 호평받았다.

키는 "일렉트로닉 음악과 현대무용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러나 뮤직비디오와 의상, 안무, 멤버들의 제스처가 합쳐지면 조화가 된다"며 "너무 전형적인 춤이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미니멀한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든 게 있었다면 (춤의 느린 박자 때문에) 이쯤에선 춤춰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완성해놓고 나니 새롭더라"고 덧붙였다.

10년 뒤 샤이니는 어떤 모습이고 싶냐는 질문에 멤버들은 잠시 고민했다.

온유와 민호는 "여전히 샤이니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고, 키는 "10년 뒤에도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했다. 태민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샤이니 정규 6집 두 번째 에피소드의 타이틀곡 '아이 원트 유'(I Want you)는 11일 오후 6시 공개됐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오는 25일 공개된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앨범차트 14위·싱글차트 48위

3주 연속 진입…팝송 차트에 두곡 올린 첫 K팝 가수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에 3주 연속 진입했다.

빌보드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는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여덟 계단 하락한 14위, 3집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는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세 계단 상승한 48위를 기록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진입 첫주 '빌보드 200' 1위와 '핫 100' 10위에 올라 세계적인 화제가 됐으며, 둘째 주 '빌보드 200' 6위와 '핫 100' 51위를 기록했다.

또 '빌보드 200'에는 전작인 '러브 유어셀프 승 허'가 110위에 올라 총 2장의 앨범이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앨범은 지난해 10월 '빌보드 200'에 7위로 처음 진입한 뒤 들고 남을 반복하며 이번 주까지 총 33주간 순위에 들었다.

아울러 최신 차트에서는 '페이크 러브'가 라디오 에어플레이로 집계하는 팝송 차트 38위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마이크 드롭'으로 25위를 차지해 K팝 최초로 이 차트에 두 곡을 올린 가수가 됐다. 한국 가수의 노래가 이 차트에 오른 것은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처음이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팝송 차트에서 여러 히트곡을 낸 첫 K팝 가수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방탄소년단은 '소셜 50' 1위, '월드 앨범' 1위와 2위·10위, '인디펜던트 앨범' 3위와 11위, '아티스트 100' 4위, '캐나디안 앨범' 7위, '톱 앨범 세일즈' 8위와 37위, '디지털송 세일즈' 30위 등을 차지했다.

'쥬라기 월드2' 배급사 "임의편집 사실무근"

일부 장면 삭제 주장에 입장 밝혀

영화 '쥬라기 월드:폴른 킹덤'(쥬라기 월드2) 측이 '임의편집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터넷 영화 게시판에는 '쥬라기 월드2'가 국내에서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기 위해 일부 장면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그 근거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올라온 '쥬라기 월드2'의 상영 시간은 127분 36초인데 반해 영국영화분류등급위원회(BBFC)에 등록된 러닝타임은 128분 17초로 41초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을 들었다. 영화정보 사이트 IMDB에는 러닝타임이 128분으로 표기돼있다.

이에 대해 배급사 UPI코리아는 1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쥬라기 월드2'는 나라마다 시장 환경에 따라 본사 및 제작사에서 다양한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며 "다수의 국가가 본사를 통해 국내 상영 버전과 동일한 버전을 받아 상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내에서 임의로 특정 장면을 편집하거나 편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감독과 제작자, 제작사의 승인을 거쳐 본사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작품을 연출한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도 SNS에 "한국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제가 승인한 공식 버전"이라며 "더는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편, UPI측은 "'쥬라기 월드2'의 불법 캠버전이 유통되고 있다"며 "유출자와 유포자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벼운 유머가 담긴 가족 친화적 영화"

또 한편의 마블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에 이어 또 한편의 마블 영화가 국내 관객을 찾는다.

오는 7월 개봉하는 '앤트맨과 와스프'는 2015년 개봉한 '앤트맨' 속편으로, 마블 스튜디오 역사상 가장 작은 슈퍼히어로 앤트맨과 그의 새 파트너 와스프가 등장한다. 둘은 시공간의 개념이 사라진 양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훔쳐 달아난 악당 고스트를 쫓는다. 액션 콤비가 등장하는 만큼, 액션과 유머가 전편보다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앤트맨과 와스프를 각각 연기한 폴 러드와 에반젤린 릴리는 현재 대만에 머물고 있다.

폴 러드는 한국에서 1,100만 명을 동원한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에 이어 '앤트맨과 와스프'가 개봉하는 데 대해 "마치 비틀스 다음에 콘서트를 하는 기분"이라며 "우리 노래를 하는 것은 좋지만, 비틀스보다 잘하겠다는 말은 하기 어렵다"며 웃었다.

영화는 가장과 히어로 사이에서 고민하던 앤트맨이 '시빌 워' 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출발한다.

폴 러드는 이번 작품에 대해 "부모와 자녀 등 여러 세대 가족이 등장하고 가벼운 유머가 담긴 가족 친화적인 영화"라고 소개했다. 또한 "평범한 사람이 어쩌다 슈퍼히어로가 된 이야기여서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스프는 앤트맨처럼 신체 크기를 자유자재 변형할 수 있고, 강력한 블래스터와 날개를 지닌 마블의 새로운 여성 히어로다. 마블 영화에서 여성 히어로가 제목에 등장하기는 이 작품이 처음이다.

에반젤린 릴리는 "타이틀에 처음 이름을 올려서 영광"이라며 "더 많은 여성 히어로가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 마블이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적극적이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 영화에는 여성 악당 '고스트'도 등장해 와스프와 대결을 벌인다.

'앤트맨과 와스프'에는 앤트맨이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와 '어벤져스4'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은다.

미 전설적 CCM 밴드 영화로 만난다

'머시미' 보컬 바트 말라드 실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

CCM은 대중음악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 내용에는 기독교의 정신을 담아내는 장르다.

'아이 캔 온리 이매진'(I Can Only Imagine)은 미국의 전설적인 CCM 밴드 '머시미'(Mercy me)의 곡이다.

1999년 발표 이후 2003~2004년 빌보드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5위, 2017년 빌보드 CCM 디지털 음원 판매 1위, 2018년 빌보드 차트 CCM 음원 1위를 기록하는 등 19년간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다.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은 머시미의 리드 보컬 바트 말라드와 그 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바트의 아버지 아서는 한때 유망한 미식축구 선수였지만 대학 졸업 후 실패를 거듭하자 폭력성을 드러낸다.

아서의 폭력에 시달리던 바트의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가고 바트는 현실을 잊기 위해 워크맨을 끼고 산다.

바트는 여자친구 섀넌이 내민 합창 동아리 모집 원서를 들고 교내 합창단을 찾게 되고, 자신이 노래에 소질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바트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무명 CCM 밴드 머시미에 합류한다.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머시미는 앨범 발매를 시도하지만 음반사 관계자들로부터 '진짜가 아닌 가짜',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혹평을 받는다.

바트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응어리의 근원이 아버지임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온 바트에게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지만 바트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나 바트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부자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다. 바트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서는 바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다.

그러나 예정된 죽음은 아서를 피해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바트는 그를 추억하며 불과 몇 분 만에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을 완성한다.

그의 삶 전체와 진심이 투영된 이 노래는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머시미를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21일 개봉하며 12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